

“This new secretary may have been a Hellenistic Jewish Christian, a man skilled in rabbinical lore and at the same time a master of the higher Koine.”

사실 “대필가”를 이용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롬16:22에서는 더디오, 벵전5:12에서는 실루아노) 그러나 얼마만큼 이들이 사도들의 기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좋은 문장이란(문어체 헬라어) 전통적 헬라어에 맞게 쓰는 경향인데 이렇게 될 때에 후대 학자들은 좋은 헬라어라고 말하는 것 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좋은 헬라어, 저것은 문법적 파격들(grammatical solecisms)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문어체 헬라어와 신약의 코이네와 대조해서 하는 말이다.

IV. 맺는말

그러므로 신약 헬라어는 성령이 유독히 교용한 언어도 아니며 그렇다고 셈족 어풍 만으로도 본질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교육받지 못한 파피루스 결본들에서 나오는 속어” 헬라어도 아니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개해 주는 일상 상용 문어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헬라고전어와는 판이한 기류라고는 볼 수 없다. 신약 코이네는 전통적 헬라어의 일반적인 맥에 준(準)하고 있으면서 문어체이면서 문법적 자질을 갖고 있는 헬라어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헬라어 이전에 고전 헬라어 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에 가까운 매우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는 대 신학자며 목회자 양성에 하나의 커리큘럼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제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오 병 세

(教授 · 聖經神學)

1. 어원적 배경(語源的背景)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4회, 마가복음에 4회, 누가복음에 32회, 요한복음에 2회, 사도행전에 6회, 바울 서신에 8회, 계시록에 1회가 나온다.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 33회, 요한복음에 1회, 가경에 1회, 히브리서에 11회 나온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인데 특히 마태가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쓰는 것을 두려워 하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천국’이라고 하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하다(마 13:41, 16:28, 눅 22:30, 요 18:36, 엠 5:8, 계 1:15).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도 ‘인자의 나라’(마 13:41, 16:28), ‘내 나라’(눅 22:30, 요 18:36)를 말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의 나라’(눅 1:33, 딤후 4:1), ‘당신의 나라’(마 20:31, 눅 23:42),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골 1:13), ‘그의 천국’(딤후 4:18),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벵후 1:11) 등으로 쓰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주셨으며(눅 22:29), 그 아들이 그의 통치를 완성하였을 때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요(고전 15:24). 그러므로 그 나라는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엠 5:5)이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것이다(계 11:15).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

리스도의 권세" 사이에는 긴장이 없다.

2. 역사적 고찰

종교 개혁 후 특히 근세에 나타난 여러 비평가들의 신국관은 자기 나름의 종말론에 입각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하르낙(Harnack)과 리츨(Ritschl)은 칸트의 철학에 근거하여 내재(內在)적이고 윤리적인 비종말론적 신국관을 세웠고 이들에 반대하고 나선 바이쓰(Weiss), 슈바이처 등은 종교사학과의 방법에 근거하여 신국은 주후 1세기의 유대 목시주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종일관 종말론(Konsequente Eschatologie)을 제창하였으며 칼 바르트(Karl Barth)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를 일반 역사(Historie)에서 초역사(Urgeschichte)로 옮기려는 시도 아래 비역사적 종말론을, 볼트만은 하이텍거의 실존철학을 도입하여 비세계화 실존론적 종말론(非世界化實存論的終末論)을 각각 내세웠으며, 다드(C. H. Dodd)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국은 이미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다드의 견해를 약간 수정하여 실현 과정에 있는 종말론(sich realisierende Eschatologie)을 각각 내세웠다. 그 밖에 스타우퍼(Stauffer), 매터(Matter), 쿨만(Cullmann), 쿨멜(Kummel) 등은 복음서에 나타난 신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들 모두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평 입장에 서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자아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국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나라' (βασιλευτα)의 뜻

'나라' (a Kingdom)의 첫째 의미는 본래 한 왕이 그 권위를 시행하는 영역(a realm)을 말한다(예: 영 연방(英聯邦)). 둘째 의미는 주어진 영역에 속해 있는 백성(people)이다. 예를 들어서 '영 연방'이라 할 때, 영국의 여왕이 그의 통치를 실시하는 시민 및 그 신하(각료, subjects)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그 나라에 대한 신학적 정의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바른 개념에 이를 수 없다. 즉 하나님을 그 원수(元首)로 삼는 영적 영역이라면,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 오는 그 나라의 내림(the Coming of the Kingdom)에 관한 귀절에 합당하지 않고, 그 나라를 미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현재 영적 실체로 그 나라를 말하는 것에 합당할 수 없다. 또 그 나라를 백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라가 교회와 동일하다는 정의가 적용됨으로 이는 성경적 정당성이 희박하게 된다.

'나라'에 대한 구약의 히브리어 '말쿠트'(מלכות)와 신약 헬라어 '바실레이아'(βασιλευτα)의 제1차적 뜻은 왕에 의하여 실행 되는 신분(rank), 권위(authority), 그리고 주권(sovereignty)이다. 바실레이아(나라)는 주권이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영역에 속한 사람과 권위의 집행을 받는 사람에 대한 뜻은 모두 2차적이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지배(reign), 통치(rule), 주권(sovereignty)이지 그것이 시행되는 영역(realm)은 아니다. 시103:19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며, 시 145:11에서는 하나님의 능력(power)을 말하고 있다.

눅 19:11~12에서 귀인이 얻으려 간 것은 영역이나 지역을 얻으려 간 것이 아니고 왕직, 즉 권위를 얻으려 갔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왕직(His kingship), 그의 통치(His rule), 그의 권위(His authority)이다. 막 10:15, 마 6:33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즉 그의 지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시되어질 영역 없는 지배(reign)는 의미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들어갈 영역(그것이 때로는 미래일지라도)으로서 그 나라를 말하고 있다.

막 9:47, 10:23, 14:25, 마 7:21과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생과 동일한 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며, ② 우리가 그의 축복의 지배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③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해야만 오는 미래 영역(a future realm)을 말하기도 한다.

4. 통치와 영역의 상태

바클레이(W. Barkley)는 주기도문(마 6:6)을 히브리 시 병행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런 상태는 ①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② 이와 관련하여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었으며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③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도 미래에 속하며 여전히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노력의 목표일 수 밖에 없다. ④ 그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또 와야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생활에 또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고 그가 오신 이후의 시대는 그가 오시기 전의 시대와 달랐다. 그

이유는 그 나라는 예수에게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상에 산 사람이나 앞으로 살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을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5. 그 나라는 구원론이다.

신적 통치의 목적은 인간의 구속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인데 고전 15:23~2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적대 세력, 즉 최후의 사망 권세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 통치에 배치되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통치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상 나라(계 11:15)는 정복되어야 한다. 그 나라는 마귀의 세력 아래 있다. 이 세상과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반대한다. 이 세대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게 한다. 사탄은 이 세대의 신이며 인간을 어두움에 사로잡힘으로 자기의 통치를 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악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이다. 이는 인간에게 성령으로(롬 14:17)의와 화평과 기쁨을 안겨다 준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두움의 세력에서 구원 받는 것을 의미하며(골 1:13) 거듭남으로 수행된다(요 3:35).

6. 그 나라는 역동적(dynamic)이다.

그 나라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그 나라는 오고 있다(the Kingdom comes). 이는 실제로 사탄의 나라를 침략하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으로 오시는 자로 그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1) 그 나라는 이 세대의 마지막에 온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내림을 구분하시었다. 이 세대 끝에 그 나라의 미래 종말론적 내림이 있다. 예수님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그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불의 저주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의인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마 25:31~46).

2) 그 나라는 역사 속에 내림했다: 세대의 끝날에 영광 중에 올 그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역사 속에 왔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사탄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였다. 사탄을 추방할 때 예수님은 그 나라의 현재성과 능력을 주장하였다.

3) 그 나라는 초자연적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동적 활동으로서 그 나라는 초자연적이다. 이는 하나님의 활동이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만이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망을 물리칠 수 있고(고전 15:26), 죽은 자를 일으켜 썩지 않을 육체로 그 나라의 축복을 이어 받으며(고전 15:50 이하) 세상 질서를 변화시킨다(마 19:28).

인간은 그 나라를 거역할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나(마 23:13) 그 나라를 파괴할 수는 없다. 인간은 그 나라를 찾을 수 있으며(눅 23:51) 그 도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마 6:10) 구할 수 있으나(마 6:33) 불러들일 수는 없다. 그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 역사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다. 인간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며(마 19:12, 눅 18:29), 역사할 수 있으며(골 4:11) 또 고통도 받을 수 있으나(살후 1:5) 인간이 그 나라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또 인간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나(마 25:34, 고전 6:9, 15:50),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수는 없다.

7. 그 나라의 비밀(mystery)

역사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현재성은 비밀이다(막 4:11).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진 신적 목적이었으나 마침내 나타나 보였다(롬 16:25 이하).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단일 현현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2장은 4개의 인간 나라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고 있다.

그 나라의 비밀은 이와 같은 것인데 종말론적 소멸 이전에, 사탄의 파멸 이전에, 오는 세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대에 들어와 사탄의 나라를 침략하여 영적 능력으로 용서의 축복(막 2:5), 생명(요 3:3), 의(마 5:20, 롬 14:16)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는 모두 오는 세대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만이 실현될 수 있는 내적이며 절대적 의(마 5:22, 48)인 것이다. 마 13장의 여러 비유들이 이 새로운 계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비유는 단일하고 근본적 진리를 실례로 보여 주는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풍유로 세세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는 왔으나 모든 사람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권세로 오지 않았다. 이는 마치 땅에 던져진 씨앗처럼 더러는 열매를 맺고, 더러는 못맺는 것과 같다(마 13:3~8). 그 나라는 도래했지만 현재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마 13:24~30, 36~43). 하나님의 나라가 실로 인간에게 왔는데 새로운 영광스러운 질서로 온 것이 아니고 겨자씨와 같이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를 결

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나라가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마 13: 31~32).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대신에 말 속에 감추어진 누룩과 같이 거의 알 수 없는 형태로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 대신에 겸손하게 도래한 것이 참으로 새롭고 놀라운 계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 나라의 현재적 현현이 겸손하게 나타났을지라도(사실 주님은 저주 받은 죄인으로 사형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즉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와 같이 어떤 댓가를 주어서라도 얻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그 나라 활동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포함되는 운동이 시작될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종말에 가서는 선악이 구별될 것이기 때문이다.

8. 그 나라의 미래면

성경은 그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미래로 말한다. 바울은 천국이 미래의 유업임을 밝히고 있다(고전 6:9 이하, 15:50, 갈 5:21, 엡 5:5). 복음서에서는 종말론적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막 9:47, 10:24), 오는 세대에 들어가는 것으로(막 10:30),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막 9:45, 10:17,30, 마 25:46) 묘사하였다. 이 3가지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인자가 영광 속에 내림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탄은 패배 당할 것이요(마 25:41).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서(고전 15:42~50), 다시는 죽지 않으며(눅 20:35 이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완성까지의 단계는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과 심판이 있는 단일 구속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계시록은 좀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시면 사탄은 결박 당하여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첫째 부활이 있으며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 동안 받게 된다(계 20:1~5). 이 동안에 계 5:10, 고전 6:2, 마 19:28, 눅 22:30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다만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계 20:10) 마침내 사망이 파괴된다(계 20:14). 이것에 대한 해석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눈다.

9. 그 나라의 현재면

하나님의 통치의 역동적 능력이 이 세대를 침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이 체험되어진 현재 영적 영역을 창조하였다. 구속을 받은 자들은 이미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골 1:13). 세례 요한 이래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입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눅 16:16). 그 외에도 신약의 여러 성경 귀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뿐 아니라 분명히 현재임을 밝혀 주고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 히 6:5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고 하여 현재에서 우리가 내세의 능력들을 경험한다고 했다. 갈 1:4에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려고 오신 것을 말한다. 히 2:14에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 못하고 정지되었음을 말한다(마 4:23,24, 9:35, 막 1:23 이하, 마 12:24~28 참조). 또 눅 17:21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두고 한 말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10. 그 나라와 교회

회원(會員)에서 보면 불가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시된다. 요 3:5에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불가견 교회와 같이 중생된 자들로만 조직된 것이다. 중생된 자만이 그 능력을 맛보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불가견(不可見) 교회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왕 즉 통치자로 모시고 있으나 이 교회에서는 그들의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과 저회기리 한 유기적 기관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체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점이 다르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적 질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적 질서를 완전히 체험하는 곳이다.

그러면 가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①가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한 것이고 지상에서의 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가견 교회는 왕국의 유일한 외부적 표현이다. 세상에서는 과학, 예술, 상업, 가정, 국가 등의 여러 영역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다 주관한다. ③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한 계속적인 역사이다. 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실제의 집단인데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역사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나 이것을 전파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 완성은 내세에서 이룩된다.